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 역대 최대

17조5천억원...문화·레저서비스 143% 늘어
소비쿠폰·코세페 영향...모바일 비중 71.6%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7조5천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과 외식, 여행·숙박 등 소비쿠폰 지원 재개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16.5% 증가한 17조5,077억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액이 17조원을 넘긴 것은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문화 및 레저서비스가 전년동월대비 142.5%,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46.6% 증가하며, 위드코로나와 트래블 버블(방역 우수 지역 간 여행

을 허용하는 협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4.4%), 서적(-0.1%) 등을 제외한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42.9%), 이쿠폰서비스(28.1)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해 가방, 가전제품 등 의류에 대한 소비도 늘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해 2,385억원이 온라인으로 거래됐으며, 가방은 53.3% 증가한 1,319억원에 달했다. 아동·유아용품(17.2%),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16.7%), 의복

(5.0%) 등 의류 거래액도 증가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잡으면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4,293억원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다. 음·식료품(3,265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3,242억원), 생활용품(2,86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쇼핑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쇼핑하는 모바일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11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2조5,287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쇼핑은 전년동월 10조1,910억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의 67.8%를 차지했지만, 모바일 거래액이 22.9% 증가하며 71.6% 비중으로 늘어났다. 상품군별로는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7.8%), 이쿠폰서비스(91.2%), 가방(83.5%) 순으로 높았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p) 등에서 하락했으나, 화장품(15.5%p), 가전·전자·통신기기(6.7%p) 등에서 상승했다.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종합몰은 전년동월대비 9.6% 증가한 11조1,111억원, 전문몰은 30.7% 증가한 6조3,965억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온라인몰은 13조2,229억원으로 18.7%, 온·오프라인병행몰은 4조4,848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김혜린 기자



올해도 부동산 탈세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집을 산 연소자들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펴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를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 패션 아이템 다시 뜬다

떡볶이 코트는 어그부츠, 나팔바지. 1990~2000년대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들이 Z세대 중심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과거 3040 세대가 즐겨 입었던 패션 아이템들이 1020 세대에 재평가를 받음에 따라 브랜드별 리메이크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국내 공식 판권을 갖고 수입·판매하는 어그 부츠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65% 신장됐다. 과거 교복 패션으로 주목받았던 더플(떡볶이) 코트는 버버리나 생로랑 등 명품 브랜드에서도 출시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신세계백화점의 지난 달 여성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고 영패션은 60.4%, 숏패션을 앞세운 아웃도어는 25.5% 매출이 각각 늘었다.

작년 3분기 건설공사 12.2%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고, 민간부문은 55조원으로 12.9% 증가했다. 건축 계약액은 상업용 건축과 기타 건축 등이 늘어난 데 힘입어 8.6% 늘어난 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2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고 51~100위 기업은 4조4,000억원으로 40.3% 늘었다. 현장 소재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30조5,000억원, 지방은 14.0% 늘어난 3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달청, 혁신제품 465억 시범구매

상반기 내 70% 계약 지정기업 조기 지원

조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65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부·공공기관 등에게 사용하도록 제공, 공공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해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조달청은 시범구매를 위한 수요조사

일정을 혁신장터에 공개,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시기를 예측해 적기에 시범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혁신제품 지정 후 시범구매 이력이 없는 제품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해 초기 판로 개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구매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금타, TCR유럽 공식 타이어 독점 공급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2022년부터 'TCR 유럽'의 오피셜 타이어로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오피셜 타이어 독점 공급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모터스포츠 기술력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TCR(Touring Car Racing)은 2015년 출범한 양산차 기반의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로 '모터스포츠'의 가치를 앞세워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22년부터 글로벌 TCR 대회 중 TCR 유럽을 비롯해 TCR 덴마크, TCR 스페인, TCR 동유럽도 후원하게 된다. 모든 TCR경기는 FIA(국제자동차연맹)가 인증한 동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며 출전 차량에는 최고 출력 350마력의 2.0L 터보 엔진과 시퀀셜 변속기 등 완성도 높은 드라이빙 시스템을 장착해 주행 성

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금호타이어는 대회 참가 차량 전체에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 S700, W701' 전량을 유상 공급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개최된 'TCR 코리아 투어링카 챔피언십'의 공식 타이어 후원사로 참여했다. 금호타이어는 2007년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F1 경주용 타이어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유일의 F1용 레이싱 타이어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포뮬러 기술에서 탄탄한 기본기와 노하우를 갖고 있어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타이어로 활약하며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황애란 기자



전남테크노파크는 4일 본원 2층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수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TP 제공

전남TP, 수출 협력 간담회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수요·애로사항 공유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4일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장영식)와 수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본원 2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TP 유동국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장영식 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기업 수출확대, 바이어 매칭, 글로벌 시장 진출 확산

을 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분야의 협력을 협의했다. 더불어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전남기업의 수출 수요와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전남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29개국, 44개도시, 66개센터)와 연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B2B 흡소핑 방송, 국가별 수출 상담회 연내 추진 등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장영식 회장은 "내고장인 전남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 세계 회원사를 통해 무역 역량을 결집시켜겠다"고 말했다. 전남TP 유동국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혁신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전남기업의 수출 판로개척과 개선에 양 기관이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산업진흥기관 확정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보를 통해 광주시의 ICT·SW분야 지역산업진흥 중심기관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선정에 전국 21개 기관이 지정됐다. 이들 중 광역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총 15개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확정 고시됐다. 향후 진흥원은 권역 내 지역 ICT·SW 산업분야 사업 기획·관리, 지역 내의 사

업 연계 등 광역단위 ICT사업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해 지역 ICT·SW산업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탁용석 원장은 "이번 권역거점 지정은 진흥원이 지역 ICT·SW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광주를 인공지능, ICT 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